

인구감소 시대, 보험업계 성장한계 위기 고령자·다자녀 등 특약으로 돌파

급격한 인구변화에 가망고객 감소
허창언 원장 “적극 대응해야 할 때”

KDB생명, 고령층 위한 종신보험
현대해상, 다자녀우대 보험 할인
한화손보, 임신 등 여성 위한 상품

주요 보험사가 저출산·고령화를 겨냥한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상생금융은 물론 저출산·고령화를 극복 하자는 의미다. 기존 특약 개정과 새로운 상품 출시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는 보험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망고객(예상보험가입고객)이 줄어들고 보험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보험업계의 대응 추구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지난 1일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에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북한보다 ‘저출산’일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이슈다”라며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보험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상품 측면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KDB생명은 초고령 사회 대응에 나섰다. ‘(무)무심사 우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을 지난 1일 출시하고 고령층과 유병자 등 보험 소외 계층의 보장을 강화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내 보험 시장에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력자 및 고령자에게도 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저출산 여파로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가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지난 2023년 폐교된 서울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뉴시스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다자녀 우대 자동차보험 할인을 제공해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설했다.

해당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고객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포인트(p) 추가 할인으로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임신, 출산 등 여성의 건강과 연계해 보장영역을 개척하

고 저출산 극복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의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특약과 출산장려 가입력 보존 서비스는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여성의 건강에 기초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가입기 여성을 위해 업계 최초로 ‘난소 기능검사(Anti-mullerian hormone)’와 ‘난자동결술 우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 생명과학 연구재단과 ‘저출산 극복 및 난임의학 발전을 위한 기부협약’을 맺은 바 있다. 난임 예방과 치료, 출산력 회복 등 여성건강 관련 분야의 의학 기술력 증진을 도모해 저출산 위기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차별화된 ‘레이디(Lady)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부담스러운 납입기간·금액 청년도약계좌 여전히 ‘외면’

지난달 가입 신청자 37.9만명
연계가입 허용에도 목표치 미달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과 비과세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아쉬운 1월 성적표를 받았다. 월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입액, 긴 가입 기간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37만9000명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허용하면서 가입자가 늘었지만, 연계 가입 추진 당시 전망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청년지원 사업으로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의 납입액에 최대 6%의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통해 만기 때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출범 당시 목표로 306만명의 가입자를 제시했다. 출시 직후인 6월에는 76만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지만, 과도한 납입액 및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신청이 줄어 12월까지 총 137만명이 가입을 신청하고 51만명이 최종 가입하는 데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난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37만9000명)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27만2000명이 연계가입 신청자였다.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은 오는 16일 마감한다. 마감 이후에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한 달 이내에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만기일이 1~3월에 집중된 만큼 연계가입자는 추진 당시 목표치인 143만6000명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꺼리는 청년

들은 월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부액과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을 이유로 들었다.

최고 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월 납부액이 부담스럽고, 이직 및 실업, 주거 불안정성을 이유로 여유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도 어렵다는 것.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경제적으로 상황에 따라 원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납입액에 따라 이자가 차등 제공돼 최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달 40만원 이상을 불입해야 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는 생활비로 매달 161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득은 180만원에 수준이었다.

이어 직장별 평균 근무 기간은 31.6개월에 불과했고, 1년 미만 근무 기간 비중도 32.7%에 달해 소득 불안정성도 높았다.

각 은행은 중도 이탈을 줄이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도 운영하고 있지만 금리가 7%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를 늘리고, 중도해지를 줄이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적금 상품에 준하는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도 중도해지에 비과세를 확대 적용하고, 청년도약계좌 장기간 유지 시 신용등급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公示해 가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이 미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 3.9% 감소... 전세대란 오나

사기여파 아파트로 전세 수요 이동
전셋값 0.06% 올라 37주 연속 상승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전세 사기, 강통전세 등 ‘전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서울 지역에선 아파트 전세 풀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1만2378건으로 전달(1만1616건) 대비 6.6%(762건) 늘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2022년 12월 2만4056건을 기록했다. 전세 비중은 47.7%(1만1469건)로 월세 거래가 더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전세 비중이 11.5%포인트 오른 59.2%로 집계되면서 전세 거래가 절반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에 대한 전

세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비아파트는 2022년 대비 2023년 들어 월세 비중이 늘어난 반면 아파트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역전세, 강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에서 전세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비아파트에서는 보증금 미비한 우려로 월세 선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달 기준)은 3만4138건으로, 전달 매물량(3만5526건)과 비교하면 3.9%(1388건)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2179건) 대비 34.6%(1만8041건) 감소했다.

전세 수요 증가로 전세매물의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오르며 3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대림’은 이달 전용면적 84㎡가 3억8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달(3억6000만원) 대비 2000만원 올랐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현대1’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4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전달(4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2000만원 올랐다.

시장에선 입주물량 감소가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1000여 가구로, 지난해(3만2000여 가구)보다 2만1000가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차라리 집을 구매하는 수요자가 늘어 매매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NH농협은행 이동점포 ‘NH 윙즈(wings)’.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설 귀성길 이동점포 운영

성남유통센터·하남드림휴게소
8~9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NH농협은행은 설명절을 맞아 귀성하는 고객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오는 8일~9일 농협 성남유통센터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이동점포 차량인 ‘NH 윙

즈(Wings)’는 금융단말기와 자동화기기(ATM)가 탑재된 차량으로 장소 제약 없이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권 인출 및 교환, 계좌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귀성기간에 농협은행 이동점포 ‘NH Wings’에서는 내방객들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신권 교환, 세뱃돈 인출, 통장정리, 계좌이체 등의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